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
Business Standard는 풍부한 동적 콘텐츠를 사용해 디지털 구독률을
높이고 Akamai 솔루션을 채택해 업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합니다.



도전과제

온라인 독자가 증가하고 보다 풍부하고 동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Business Standard는 매력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속도와 응답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신문

Business Standard는 처음으로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을 제공한 주요 신문사 중 하나였고, 신뢰성과 통찰력 있는 비즈니스 분석은 유료 구독자를 강력하게 끌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신문 기사가 소용량 콘텐츠(소셜 미디어 등)에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빠르고 동적인 콘텐츠를 많이 사용해 독자를 구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Akamai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의 신뢰와 관심도 유지

인도에서는 Business Standard보다 더 신뢰받는 비즈니스 출판물은 거의 없습니다.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천개 도시에서 충성도 높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립 저널리즘으로 명성이 높은 Business Standard는 유료 가입 서비스를 통해 프리미엄 온라인 콘텐츠를 최초로 제공한 비즈니스 출판사 중 한 곳입니다. 아직도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인쇄물에 집중되어 있지만 디지털 독자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월별 고유 방문자 수는 1500만명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지배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독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Business Standard의 지속적인 도전과제입니다. 인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Twitter, Facebook, TikTok, WhatsApp 등에서 정보와 뉴스를 얻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널리즘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객관성과 신뢰성이라는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Business Standard의 디지털 비즈니스 총괄책임자인 샤일렌드라 칼렐칼(Shailendra Kalelkar)은 "Business Standard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젊은 독자층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독자층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독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라고 언급합니다.

Business Standard

고객

Business Standard
 New Delhi, India

www.business-standard.com

업종

퍼블리싱

솔루션

Dynamic Site Accelerator

Download Delivery

비즈니스 효과

- 매월 1500만 명의 고유 방문자 지원
- 뉴스에 즉각적으로 접속해 쾌적한 읽기 경험 제공
-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에서 발생하는 매출 증가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에게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 제공

칼렐칼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온라인 신규 및 유료 신문 구독자를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기업 리더를 구독자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도의 명문 비즈니스 스쿨(B-school)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Business Standard의 온라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매일 비즈니스 뉴스와 학술 연구, 사례 연구, 모범 사례 자료에 무료로 접속해 학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Business Standard는 디지털 에디션을 웹과 모바일에서 비디오, 이미지, 팟캐스트, 여론조사로 구성해 더욱 풍부하고 동적인 콘텐츠로 신규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는 최신 뉴스, 깊이 있는 관점, 독특한 경험을 원하고 유료로 구독할 의사가 있는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이습니다. Business Standard가 유료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늘리면서 안목 있는 구독자들은 프리미엄 구독을 구매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독자층을 늘리고 검색 순위를 높이는 빠르고 동적인 뉴스 경험

Business Standard의 디지털 에디션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지만, 트래픽 양이 증가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성능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도 있었습니다. Business Standard가 기상 이변, 크리켓 월드컵 등 속보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에 독자들이 경험하는 웹사이트 속도가 느리다는 뜻입니다.

Business Standard의 IT 시스템 관리 책임자 구루라지 파틸(Gururaj Patil)은 “우리의 오리진 서버는 큰 폭으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할 수 없었고 사이트가 독자들에게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전승하기 위해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에 투자해야 했고, 우리와 대화를 나눈 모두가 Akamai를 시장 리더로 추천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Business Standard는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Akamai를 통해 오리진 서버에서 정적 및 동적 콘텐츠의 부하를 분산하는 프리미엄 CDN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식 시세, 라이브 블로그, 비디오 스트리밍 요소 등 동적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Akamai의 Dynamic Site Accelerator를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시각적인 오늘날의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이미지 및 비디오와 같은 정적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Akamai Download Delivery를 도입했습니다.

Business Standard의 수석 시스템 관리자인 프라풀라 파틸(Prafulla Patil)은 “Akamai는 무료 콘텐츠와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간에 원활한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CDN 사업자였습니다. 두 명의 개별 시청자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하고 특정 콘텐츠를 유료로 유지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칼렐칼은 “Akamai를 통해 사이트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송 속도가 중요한 업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분야에서 우리는 경쟁사보다 훨씬 더 우수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능이 개선되면서 Google, Facebook, Apple 등의 검색 엔진 및 뉴스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Business Standard의 가시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인터넷에서 얻은 콘텐츠를 취합해 독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콘텐츠 전송 및 페이지 로딩 속도가 빠른 사이트를 선호합니다. 즉, Business Standard의 기사는 애그리게이터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고 보다 많은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독자를 유치하고 회사의 디지털 매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에게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 제공

내일의 디지털 에디션 작성

Business Standard는 이제 독자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칼렐칼은 “Akamai 솔루션을 도입한 후로 우리는 성능과 비효율성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았고 기존에 추진되던 이니셔티브를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Akamai는 B-스쿨을 위한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 및 고유 솔루션의 도입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Business Standard는 B-스쿨 학생을 위해 주간 인터랙티브 퀴즈를 개발했으며,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같이 매력적이고 개인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독자가 되도록 장려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고등교육 인증 위원회와 함께 신문사 콘텐츠를 B-스쿨 커리큘럼에 통합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점을 배정하는 방안에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생각은 Business Standard가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되며 젊은이들이 우수한 품질의 저널리즘이 갖는 가치를 깨닫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Business Standard는 프리미엄 콘텐츠의 가치를 알아보는 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지털 구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Akamai를 통해 독자가 증가하고 콘텐츠가 점점 더 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수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틸은 “Akamai는 약속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덕분에 우리 비즈니스가 한 차원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에게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 제공

Business Standard

Business Standard는 인도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신문입니다. 1975년 3월 27일 콜카타에서 첫 판을 인쇄한 이래로 이 브랜드는 45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웹 사이트는 1997년 1월부터 운영되었으며 인도 디지털 출판사의 초기 산물입니다.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Business Standard를 다른 신문과 차별화한 요소는 독자들에게 대한 수그러들지 않는 책임감과 투명성, 그리고 진정으로 독립적인 편집 기관입니다.

Business Standard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보도, 정보에 입각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논평, 윤리 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성불가침한 구독자와의 유대에 의해 정의되는 저널리즘을 의미합니다. 모든 Business Standard 저널리스트들이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행동 강령에 서명합니다. 경제학자,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작성자 등 저명한 논평 기고자들은 성숙하고, 젊고 야망 있는 독자들에게 동등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관료집단(과거 및 현재), 업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점을 가진 이들이 이 엄선된 그룹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비즈니스 분야 최고의 작성자와 콘텐츠의 고유한 조합 덕분에 Business Standard는 디지털 플랫폼 유료 구독자를 처음으로 보유한 인도 비즈니스 신문이 되었습니다(2016년 6월 1일 개시). 일간 비즈니스 신문(12개의 대도시에서 출판)과 신생 웹 사이트 외에도 이 브랜드는 힌디어(6개 중심지와 한 웹 사이트에서 퍼내는 신문)로도 출판됩니다.



Akamai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Akamai의 Intelligent Edge Platform은 기업과 클라우드 등 모든 곳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객의 비즈니스가 빠르고, 스마트하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Akamai 솔루션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Akamai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자에게 의사 결정, 앱, 경험을 제공하고 공격과 위협을 먼 곳에서 차단합니다. Akamai 포트폴리오는 엣지 보안, 웹-모바일 성능, 엔터프라이즈 접속, 비디오 전송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수한 고객 서비스, 애널리틱스, 24시간 연중무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기업과 기관에서 Akamai를 신뢰하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Akamai 홈페이지(www.akamai.com), 또는 블로그(blogs.akamai.com)를 방문하거나, Twitter에서 @Akamai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Akamai 연락처 정보는 www.akamai.com/loc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kamai 코리아는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21층에 있으며 대표전화는 02-2193-7200입니다. 2021년 1월 발행.